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

(스가랴 8장 1절~23절)

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
본문 말씀은 새삼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전체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합니다.

요즘 들어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라는 말이 됩니다. 즉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목회 형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도 가나안 교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교계 내에서는 이에 대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대신에 조직 강화와 확장을 위해 헌신과 충성만을 강요한 결과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느끼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는 이유는 헌금을 내기 싫어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기 싫어하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석 여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까지에서 '예루살렘 성읍'이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교회에 대한 언급을 이 시대의 교회 문제와 연관시켜서 정한 제목이 바로 '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교회가 출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 중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 출석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나 국적이라는 개념에 출석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석이라는 행동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잘 살리고자 한다면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가나안 예배당"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혹은 예배당의 조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교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출석하거나 빠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 전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언급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도 50번 이상이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특히 1~3절에 집중하여 살펴보며 '참 교회는 출석이 불가하다'라는 제목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라는 말에서 질투로 번역된 부분은 열정을 드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련된 일에 열정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일평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는 반복되는 업무처럼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열정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한눈을 팔 때에 하나님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속한 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복되는 업무처럼 지겹게 여기지 않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개입하시기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은 분노로 질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으시고 한눈을 팔 때에 분노로 질투하시는 사람들 전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읍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정이 분노함의 질투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앞서

언급된 예루살렘 성읍과 동의어로써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성립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가운데에 계실 때에는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열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립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인 교인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세상에 한눈을 판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분노함으로 질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모습이란 마치 하나님이 우산대나 바퀴의 축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우산살이고 바퀴살입니다. 우산살은 가까이 있어도 우산살끼리 붙으면 안 됩니다. 모든 우산살들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접촉하고 있고 맞닿아 있는 것은 우산대입니다. 바로 우산의 형태나 바퀴의 형태로 교회는 존립이 가능합니다. 참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써만 서로에게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전에는 서로에게 마음을 붙이고 살았지만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되었다면 서로가 우산살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마음은 하나님께만 연결이 됩니다. 이때에 이전처럼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면 우산살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우자에게로 향하는 마음에 대해 분노함으로 질투하실 것입니다. 교인이면서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먼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질투가 나타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계시며 분노의 질투를 발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히 다른 대상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붙잡아서 배우자의 자리에 유지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를 붙잡아서 자녀의 자리에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의 도리를 다함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만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가족조차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는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각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나는 더러운 자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의 다음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라고 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정도 되어야 진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곧 가장 좋은 것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세상에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에 도달하거나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특징입니다.
공자가 변화산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공자의 유교사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일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헤겔이나 칸트 같은 대철학자들도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들만의 사상과 철학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의 사상들은 진짜 가장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암중모색으로 얻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결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는 재건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 안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분 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벌레 같고 더럽고 추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나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 세상에 포로 되어 살던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는 마음으로 부활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동일시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교회의 정의를 내려 봅니다. 참 교회란 우리가 흔히 일컫는 예배당 조직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 중심의 조직이 그 자체로 교회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역 예배당 조직에 함부로 붙이는 것은 교회의 명

칭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교회는 예배당 조직과 무관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저에 대해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교회주의자라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부른다면 무예배당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교회가 아닌 참 교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예배당이 교회와 무관하다면 예배당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교회이기 위해서 없는 교회 건물을 기를 쓰고 새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 교회가 되고자 이미 존재하는 교회당 건물을 굳이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예배당 건물은 있거나 없거나 참 교회됨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교회란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배당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이 교인이며 이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강릉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서 마음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인도에서 마음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모인 상태를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교인됨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예배당 조직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서 머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출석할지라도 마음은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 봉사하고 수행하느라 온 마음을 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교인도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목회현장에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는 교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배당 조직에 출석하지 않을지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몸으로 출석하거나 결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몸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당 조직을 교회로 착각하기에 예배당에 안 나가는 것을 교회에 안 나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배당으로 오라는 말을 교회로 오라는 말로 착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체의 삶이란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것과 닮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호주에 가든 러시아에 가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인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갔다고 해서 왜 대한민국에 출석하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 없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예배당을 가든 안 가든 교인이냐 아니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당 조직에 속했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가 교인의 조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의 연쇄적 과정을 따라서 나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배당 조직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교인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모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회란 마음이 하늘에 머무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임에 힘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돕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임 자체는 교회의 부분이고 전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이 모임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신앙의 사건이 하나 된 교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지역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을 로마 교회라 불렀고, 고린도 지역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라 불렀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불린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와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됨의 핵심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모이는 지역적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예배당 조직을 교회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마음이 하늘에 가서 머물러있지 않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사업에 마음이 가있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부흥하고 예배당 건축에만 마음이 가있다면 그들이 비록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모임으로써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머물러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보자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예배당 조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졌다가도 모임이 없어지면 다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됨과 교인됨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교인으로써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강화되고 도움과 유익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모임 자체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오해 때문에 교회에 출석 여부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로 보낸 사람들 전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가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시며 이 교인됨을 강화시켜 주고 도와주고 나누게 하시므로 부요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